

Vol. 120

2023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9·10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HOPES HAPPINESS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 02 **인사말**
가을만큼 무르익어 가는 행복
- 04 **스페셜 리포트**
임시이사회
시·도지부장 회의
- 06 **한센 리포트**
낙동 배움행복마을 개강
치매예방교육 증강
한센인의 위로지원금 증액 추진
필리핀 학교 운영이사회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소천
한센가족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안내

한센 탐방

- 20 **지부는 지금**
광주·전남지부
서울·중부지부
울산·경남지부
- 28 **유관단체동정**
한국한센복지협회
- 29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 공감

- 31 **함께하는 한센**
이별의 고통_신재문(영락마을 대표)
치매예방교육 소감문_전혜주 강사
- 34 **도성마을을 예술로 승화,
설치미술 '마감뉴스'**

한센 이모저모

- 44 **한센병 바로알기**
- 48 **정보알리미**
'일석삼조' 저탄소 식생활
두통, 참지 말고 해결하기
가을에 조심해야 할 질병 6가지
요즘이책
- 62 **독자들의 공간**
가로세로 낱말퀴즈
한센게시판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임시이사회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면담



김성수 정책자문위원 만남



가을만큼 무르익어 가는 행복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높은 하늘 덕분에 공기가 한층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울긋불긋 물들어 가는 산등성이를 보면 가을이란 계절은 서툰 화가처럼 갖가지 색깔로 뽐내기에 바쁜 모양입니다. 한센 가족 모두 평안하신가요?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 총연합회도 한센 가족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現 우리 정부의 예산 기준은 2022년부터 예산 동결과 삭감을 최우선시하여 편성하고 있어 위로지원금 증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석 의원, 김승남 의원, 최연숙 의원, 한병도 의원, 조해진 의원, 강선우 의원, 서영석 의원,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친자·배우자는 180만엔, 형제·자매는 130만엔으로 현재까지 148명의 서류를 일본 정부에 송부하였고, 이 중 36명이 보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상 청구 기간은 2024년 11월 24일까지로 일본 정부에 서류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 대부분이 고령자이므로 속히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이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고령의 한센인이 배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지역 낙동마을에서 배움행복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 위치한 삼애마을, 칠곡마을, 금성마을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철학자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한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센 가족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 모두 힘찬 마음으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임시이사회 개최,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 기능 강화 모색

9월 8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길용 회장을 비롯해 이사 11명이 모인 가운데 총연합회 임시이사회가 개최됐다.

이길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총연합회 추진 사업의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내부 규정의 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총연합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총연합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도지부장 회의, 지부와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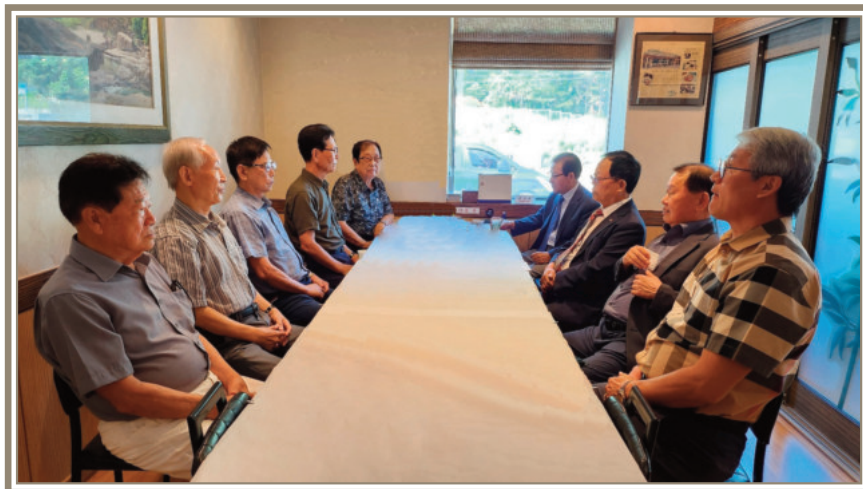
우리 총연합회는 9월 7일 청주시 서원구 일원에서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이 참석하여 총연합회 사업 추진 방안, 지부와의 협력 방안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히, 한센인 피해 사건 위로지원금 증액을 위한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 추진을 위한 협조를 비롯해 총연합회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방안과 지부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방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센인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낙동마을, 맞춤형 교육으로 한센인 행복 지킨다! - 배움행복마을 개강 -

9월 4일 낙동마을(경남 김해시, 대표 이차연)에서 경남지부 이상용 지부장, 김해시 보건관리과장, 교육기관 관계자, 낙동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행복마을 개강식을 개최했다.

배움행복마을은 정착마을 한센인에게 교육을 통한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낙상예방, 노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고령의 한센인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낙동마을 교육생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좋다.”라며 설레는 표정과 함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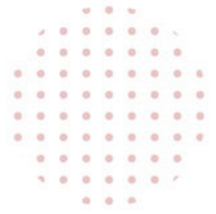
총연합회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이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센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지 기능 향상! 삶의 활력 증진!

- 경북지역 치매예방교육 종강 -



우리 총연합회는 7월 13일부터 경북지역에 위치한 삼애(경북 김천시, 대표 정구식)·칠곡(경북 칠곡군, 대표 홍완근)·금성(경북 의성군, 대표 조시원)마을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치매예방교육은 마을별 15회기 교육으로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국시니어인지교육협회(대표 박양미) 강사진과 교육을 추진하여 10월 24일(금성마을)과 26일(삼애·칠곡마을)에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15회기의 통합적인 치매예방교육 과정으로 치매의 종류, 증상, 오해, 예방 방법을 통해 치매를 이해하고, 기억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훈련과, 다양한 신체 활동 등 균형있는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한 교육생은 “몸이 불편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보조강사의 도움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웃음의 유익에 대해 배우며 실컷 웃었더니 기분이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우리 총연합회 치매예방교육은 주 강사와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몸이 불편한 한센인의 교육 적응을 돕고, 높은 치매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지부를 통해 교육 신청서를 받고,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치매 예방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센인의 위로지원금 증액 추진○●



우리 총연합회는 8월 23일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증액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업의 예산 증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증액 추진에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또한,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원금 인상을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강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의 한센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복지 증진 및 인권 신장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필리핀 학교 운영이사회 개최



9월 6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필리핀 학교 운영이사회가 개최됐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운영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 결의 및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학교 추진 현황 ▲재무 보고 ▲학교 운영 및 예산 방안 ▲유치원 운영 계획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총연합회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필리핀 한센인 마을 칼로오칸시에 국제적인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였으며, 오는 9월 유치원을 개교했다.

이길용 운영위원장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폴리텍대학까지 설립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이 남아있다.”라며, “한센인 마을에 교육으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운영이사들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 발전은 물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

- 김성수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

9월 21일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우흥선 사무총장은 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 겸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역임한 김성수 주교가 있는 우리마을(인천 강화도 길상면)에 방문했다.

이길용 회장은 추석 인사를 전하고, 최근 총연합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성수 주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에 기뻐하며 “주교님의 삶과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주교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총연합회가 더욱 연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김성수 주교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기관인 강화도 우리마을 촌장이다. 대한성공회는 교회의 어른인 김성수 주교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영상 기록을 남기고자, 양식화된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시네마틱 초상화 다큐멘터리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를 제작했다.

하지만 김성수 주교는 겸손한 성품으로 인해 다큐멘터리 출연을 탐탁지 않았고, 감독은 김 주교의 인터뷰를 위해 노력했지만 김 주교는 자신의 업적을 상세히 언급하려 하지 않는 등 인위적인 설정에 의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감독은 김 주교의 가족 모임을 촬영하면서 유학 중이던 손녀를 만나 다큐멘터리 제작팀의 스텝을 제안했고, 손녀는 할아버지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

손녀의 설득으로 김 주교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임했다. 손녀는 삼촌(주교의 아들)을 인터뷰어로 설득하고 김 주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 다큐멘터리는 제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김 주교의 어린 시절과 성공회 사제가 되는 과정, 마침내 주교가 되기까지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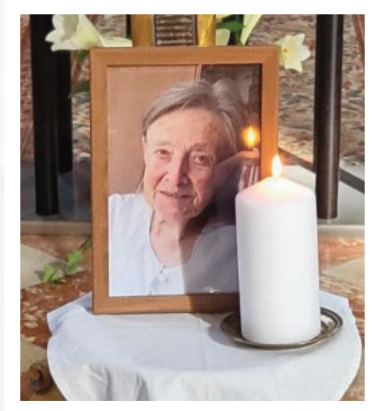
제2장은 1987년 6월 10일 국민대회 장소인 성공회 대성당 내 국민운동본부에 대한 기억 회상과 성공회대 총장 시절, 발달장애인의 교육기관인 성베드로학교, 발달장애인 어린이집인 희망학교와 후리다 여사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3장은 뉴밀레니엄에 설립된 발달장애인 강화도 우리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김성수 주교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다큐멘터리는 9월 15일, 17일 필름포럼에서 상영됐다.

더불어, 10월 6일 대한성공회 서울교주 주교좌성당에서는 ‘우리마을’과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가 함께하는 두 번째 시몬의집 건립 후원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음악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늘의 부르심 받은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며 ‘소록도 천사’로 불리던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가 지난 9월 29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8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고인의 시신은 생전 고인의 희망에 따라 오스트리아 의대에 기증됐다.

故 마가렛의 미사는 10월 7일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부르크의 회팅거 성당에서 봉헌됐다. 고인이 머물던 요양원에서 5분 거리의 작은 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는 고인과 함께 소록도에서 봉사한 마리안느 스토거 간호사와 유족,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관계자,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90여 명이 참례했으며, 국내에서는 10월 4일

부터 8일까지 닛새간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사)마리안느와마가렛, 전남 고흥군 등 공동으로 분향소를 운영하여 추모객을 맞이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마가렛 간호사는 한센인을 돌볼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호단체 다미안 재단을 통해 1959년 한국에 입국, 1966년부터 소록도 생활을 시작했다. 고인은 1962년부터 소록도에서 머물러 온 마리안느 간호사와 함께 5년간의 공식 파견 기간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남아 변함 없는 사랑으로 한센인을 보살폈다. 한국인 의사들조차 접촉을 꺼리던 환자들과 생활



하며 직접 고름을 닦아내고 치료를 돕는 모습에 감명받은 이들은 고인을 ‘소록도의 천사’, ‘한센인들의 엄마’라 불렀다.

하지만 온 생을 다해 헌신했던 그도 세월의 무게를 어찌할 수 없었다. 지난 2005년 그는 나이가 들어 더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다며 편지 두 장 만을 남기고 마리안느 간호사와 함께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이후 경증 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한 고인은 최근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던 중 갑작스레 선종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스테거와 故마가렛 피사렉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발전해 제2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양성하는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01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보상 청구의 내용

02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4. 11. 24.까지(한시법)

보상 대상

02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04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안내 및 문의

05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3. 9. 19. 기준 148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36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에 청구시한 전에 2~3개월 여유 있게 한국변호인단에 서류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 문의사항 : 한국한센총연합회 정태영 과장
 - 전화 : 1566-2339 / 팩스 : 1566-2032

광주·전남지부, 故 육영수 여사 추모

광주·전남지부는 8월 15일 현애마을에서 故 육영수 여사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지재운 지부장을 비롯해 김영근 이사, 현애마을 주민, 재생 마을 대표 등 참석했다.



추모식은 추모사,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재운 지부장은 “故 육영수 여사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손길을 건내주신 분”이라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고인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故 육영수 여사는 어머니 같은 분이였다.”라며 여사를 회상했다.

광주·전남지부는 매년 정착마을 대표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故 육영수 여사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풍성한 한가위,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송편 전달



9월 25일 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청원마을(충북 청주시, 대표 현인홍)과 충광마을(세종시 부강면, 대표 박행남) 한센인 어르신 가정에 국제라이온스클럽 356-D(충북)지구(총재 윤정숙)에 속해있는 청주백합라이온스클럽(회장 조영미)이 송편 50BOX를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_D(충북)지구 총재 윤정숙은 지난 7월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한센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쳐왔으며, 2017년 백합라이온스 회장을 역임한 후 충북지구에서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 지구 1·2부총재 등을 거쳤다.

또한, 청주백합라이온스클럽은 한센인 정착마을을 꾸준히 방문하여 경로잔치, 직접 담근 김장 김치 전달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한센인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영미 청주백합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추석을 맞아 한센인 어르신 가정에 송편을 전달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은 “한센인 어르신들을 위해 송편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어르신들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중부지부, 영락·성광마을 복지 실태 조사... 이주·환경 개선·소득 창출 등 개선 방안 제시



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영락마을(충남 서산시, 대표 신재문)과 성광마을(충남 논산시, 대표 민병근)을 중심으로 한센인 정착마을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연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9월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남 내 한센인의 복지 실태 조사와 주민 대상 설문 및 면접 내용을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한센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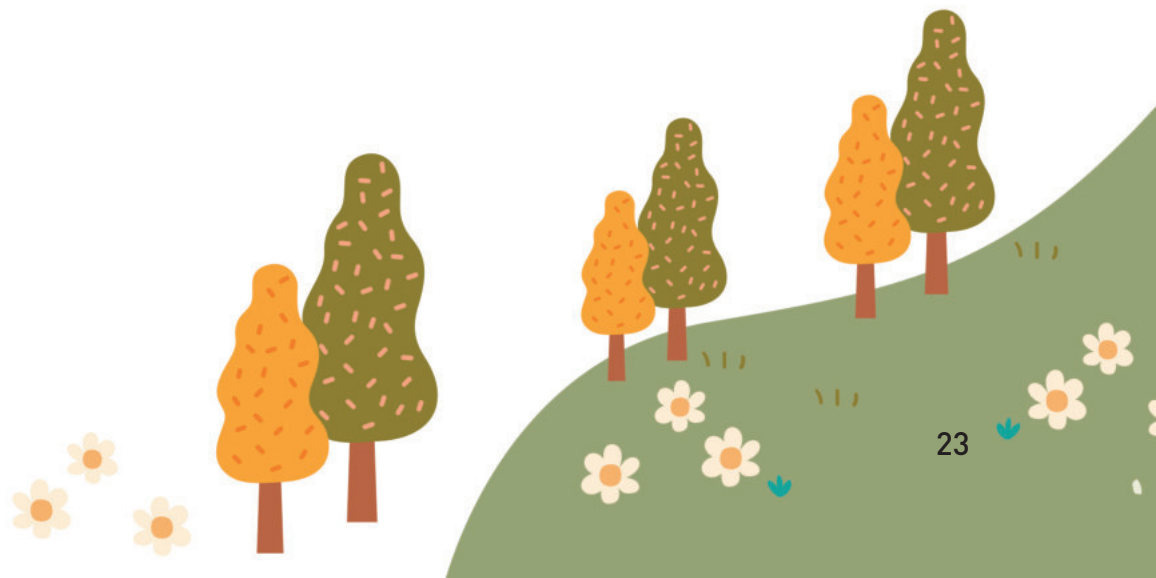
협력단은 충남 한센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이주 특별 지원금,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 주민 이주 대책 ▲석면 지붕·폐축사·주택 등 철거 지원 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태양광





시설 설비 등 한센인 소득 창출 대책 ▲방문 진료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지원 등 건강 지원 대책 ▲복지관 등 연계 상담·사례관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외출 동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소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 및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충남 한센인 복지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총광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소

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산하 총광마을(세종시 부강면, 대표 박행남)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총광마을 교회 앞 사유지에 대해 불하 또는 무상 사용을 위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대회의실에서 박우택 지부장을 비롯해 박행남 대표,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세종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도록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총광마을 한센인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민원 토지의 지적총량을 해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온 충광마을 한센인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은 “40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기쁘고,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수고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울산·경남 한센 가족, 화합과 희망의 장 마련

- 제13회 경남 한센 가족의 날 개최 -

10월 20일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함안 군북 3·1기념 체육관에서 '제13회 경남 한센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울산·경남 한센인과 가족을 비롯해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이상용 지부장, 조근제 함안군수, 신종철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계현 도의원,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창원다복문화예술봉사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 사회로 개회선언, 축사, 격려사에 이어 한센 가족을 격려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호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특히, 한센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김해 신암마을 성도경 운영위원장, 금호마을 곽선미 대표, 소혜마을 허태관 대표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상용 울산·경남지부장은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제13회 경남 한센 가족의 날’ 행사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한센인들이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 한센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한센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2부 체육대회에서는 윷놀이, 줄다리기 등 한센인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하여 한센인 가족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표창 수여



기념촬영



식전행사



기념행사



체육대회(웃놀이)



체육대회(줄다리기)

한국한센복지협회 창립 75주년 행사 개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9월 1일 창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 75주년이라는 기록은 여타 기관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일이지요,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협회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김인권 회장님의 기념사와 함께 회장 표창, 장기근속자 포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집중력 UP! 성취감 UP! 자신감 UP!

- 미술 만들기 프로그램 -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어르신들의 성취감과 편안함,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는 미술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미술 놀이 활동으로, 준비된 5가지 도안(토끼, 선글라스, 달팽이, 원피스, 사람)에 꽃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티커를 도안에 붙이는 활동은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과 소근육 강화에 좋으며, 소근육의 움직임은 뇌 운동과 연결되어 치매 예방·운동 능력·기억력 등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손이 많이 떨어져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멋진 미술 작품이 되어서 뿌듯하다.”, “힘들었지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집중력·성취감·자신감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송정하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양이동진료서비스 실시

9월 5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중양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 서비스는 각종 질환 검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으로 혈압, 종양표지자, 혈액, 안압, 체지방, 보장구 관련, 골밀도, X-선, 심전도, 진료, 초음파 검사 순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종합건강검진 등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별의 고통

신재문(영락마을 대표)

평생을 영원할 줄 알았던 친구
가끔 아프다기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과 이별할 줄...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 것을
허무한 마음 소리 내 울지 못하고
찢어지는 가슴 부여잡고 달랠 길 없네

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는 인생사
그 누가 이 길을 막을 수 있으랴

떠날 때 미소 띠며 가버린 친구
보내야만 하는 나는 어찌하라고
감당하지 못하고 스러지네요

산다는 것은 종착역을 향해 가는 인생
함께 가다 훌쩍 먼저 가버리다니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 보며
참을 수 없어 눈물만 흐르네



거창 배움행복마을 교육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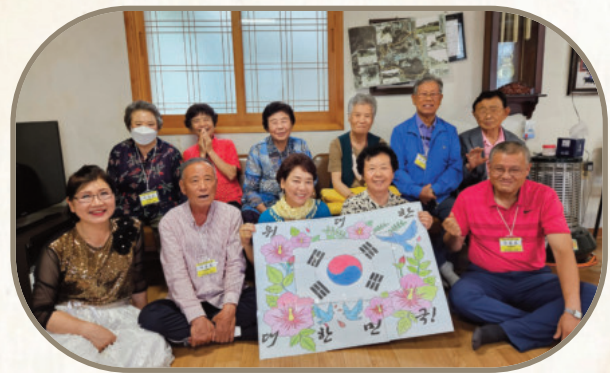
건강증진&낙상예방교육 전혜주 강사
(국제행복교육원)

“거창 배움행복마을 교육이 정말 좋다. 제일 좋다.” 거창마을 어르신들은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들이셨다.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인 치매 예방 교육의 경험이 있어 교육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어르신들은 부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사고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교육 초기에 어디에서나 느끼는 일이기도 했다.

강사는 알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변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을... 교육의 매력에 빠지면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알게 되었다. 역시 거창 배움행복마을

을 어르신들도 차츰차츰 교육의 매력에 다시 빠지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뜸하던 어르신께서도 점점 더 잘 참여하셨고, 손과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다양한 교육이 있었지만, 그 중 어느 때가 가장 좋았냐고 물으면 어르신들은 한참을 생각하셔야 했다. 원예교육을 할 때도 정말 좋다고, 제일 좋다고 하셨다. 다음 공예 교육을 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새로운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만족감을 드러내셔서 다른 강사님들도 감동하였다고 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옷을 입어 볼 것이냐며 알록달록 만들어진 짧은 한복 치마에 속바지를 입으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사진을 보며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시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원에 돌아와서 수료식을 준비하며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의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피곤함을 달랬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함을 안겨드리면서 마무리할 것인가?’ 교육원 대표님과 우리는 고민하며 준비했다.



우리 교육 강사들은 교육 후기와 교육생의 반응 등을 서로 나누며 거창마을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강사가 받은 감동을 공유하였다. 거창 배움행복마을 교육을 마치며, 거창마을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해 본다.



예술인과 함께하는 도성마을, 설치 미술 '썬그라스'

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지재운) 산하 도성마을(대표 강수웅) 일대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설치 미술 축제가 열렸다.

여수 에그갤러리(관장 박성태)는 개관 2주년을 맞아 야외 설치그룹 마감뉴스를 초청해 여수애양병원과 애양교회, 한센기념관을 비롯해 도성마을 일대에서 설치미술가들이 '썬그라스'라는 제목으로 설치 작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마감뉴스는 인간과 환경, 자유, 평화 생명을 화두로 1992년 겨울 경기도 마석의 작은 마을에서 결성된 설치 미술 그룹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은 장소에서 주어진 자연의 장소적 특성과 지형지물, 재료를 이용한 작업을 한다.

썬그라스는 한센병 후유증으로 실명이 되거나 안구가 붉게 변해 썬그라스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다양한 의미로 반응하는 각자의 '색안경'과 해와 풀을 결합한(sun+grass)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마감뉴스는 도성마을과 한센기념관 일대에서 폐축사와 폐가 등에 버려진 재료와 삶의 터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한센인의 역사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이들 작품을 촬영해 에그갤러리에서 아카이브전을 개최하고, 관객들은 아카이브전을 관람 후 설치 작품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들고 마을 일대를 돌며 관람했다.



이말용 마감뉴스 회장은 “낮선 환경을 찾아다니며 전시를 하는 마감뉴스에게 도성마을은 인간의 편견과 무지로 고통 받았던 한센인들만의 단절된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확장을 설치미술을 통해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에그갤러리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개관해 현재까지 전시와 공연 등을 17회째 이어 오면서 도성마을과 외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내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센」이 만난 설치그룹 「마감뉴스」

설치그룹 마감뉴스는 1992년 6명의 조각가에 의해 결성되었다. 화이트 큐브의 미술관이 아닌 열린 공간(야외)에서 지금까지의 답습의 시간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지는 의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정의 '마감뉴스'를 보고, 회(會)의 명칭을 마감뉴스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마감뉴스의 특이성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기'를 마감뉴스의 고유성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안주나 안정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감뉴스'라는 공동체는 유연하고 소속 작가의 연대는 매우 돈독하며 전시의 내용은 매해 새롭다. 해마다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며 섬, 폐탄광, 산, 폐교, 갯벌, 작은 마을 등 다양한 생태와 서사의 공간에 주목한다.



2023년 현재 33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언어로 낯선 장소를 해석하고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매해 정기전을 가진다. 정기전은 2박 3일을 함께하며 현장 작업을 하고, 개인의 작업 과정에 대해 서로에게 어떤 관여나 개입을 지양하며 작가의 몰입을 존중한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작품 투어를 통해 동료 작가들은 서로의 작업관과 집중의 시간에 대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이동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것과 낡음, 생성과 소멸, 자연과 사람, 옹고 그림의 이분법의 논리를 넘어서 '설치그룹 마감뉴스'의 정체성을 30여년 동안 다져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회의 임원(회장, 총무, 회계, 서기, 기획, 홍보)은 임기가 1년이며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역할은 돌아가면서 분담

하고 단체의 발전을 위한 품앗이의 개념으로 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나이나 성별의 다름이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며 자연 공간만을 고집하거나 자연 재료만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낮은 공간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형지물을 이용, 자연이 주제가 되기도 소재가 되기도 한다. 열려있는 사고, 유연한 작업 태도, 규정 지으려 하지 않음이 ‘설치그룹 마감뉴스’의 30년을 말하고 있다. 소박하지만 머무르지 않고, 물 흐르듯 살아가지만 치열한 예술혼을 지향하는 그룹이다.

이번 도성마을에서의 전시는 가장 서사가 강한 공간인 만큼 ‘만인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단절되어 있는 이 마을에 애양병원의 후원으로 토폴하우스와 치유의 숲에서 숙식을 하며 이 마을을 오롯이 느끼는 3박 4일 동안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도성마을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켜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각오로 공간을 운영하시는 에그갤러리 관장님의 가교 역할로 마을 분들을 만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보살핌을 받았다.

물론,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역정과 작품 패대기도 겪었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가 되었다.

마감뉴스의 특성상 차별이나 위계 없는 공동체로 자부해 왔었는데 이 마을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며 겪지 않은 아픔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안다는 것에 대한 오만, 배려라는 말의 허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작가들의 후문이다.

50여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이들의 삶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에 무지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한센」에서 만나보는 '썬글라스', 만인은 평등하다.

도성마을에 위치한 에그갤러리가 개관 2주년을 맞아 설치그룹 '마감뉴스'를 초청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인 도성마을에 한센인 삶의 흔적과 터전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연의 장소적 특성과 지형지물,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전시했다.

마감뉴스 소속 작가 26명과 게스트 작가 6명 등 총 32명이 참여했으며, 32명의 작가 작품을 총연합회 소식지인 「한센」에서 만나 본다.



박동화,
〈도성영가-잃어버린 시간〉



박치호, 〈구원-란좌십자가〉



오수연,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건가?〉



김순임, 〈도성마을 벽에 뜬 달〉



김명수, <새야, 날아라>



조미영, <은은은>



허지예, <기식제>



허지예, <여전히 깨어날 수 있는>



김도현, <2083-이끼>



장영훈, <징글벨>



정혜령, <작은 안녕>



변사무엘, <오색빛깔>



김성미, <소실.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



배숙녀, <SOUND>



최용선, <My road>



찰리(이찬효), <우연한 발견>



김인수, <여백>



김정도, <Sun Grass>



김용민, <축복의 길>



송현호, <삶 이야기>



이명섭, <담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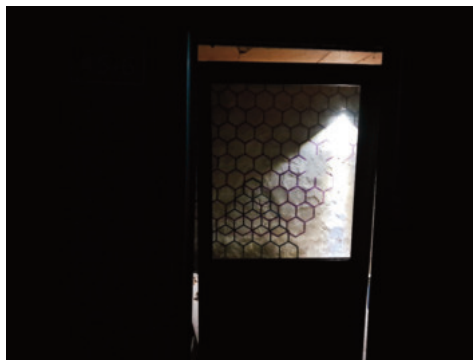
최지은, <하얀 꽃이 피어나다>



강태현, <소 통>



이흥한, <기념품 판매점>



정상수, <그려낼지않은>



옥현철, <화가의 거울>



이명훈, <각자의 무게>



박수연, <마늘망 옆에 피규어망>



박수연, <사료통열기구>



박수연, <Dear flower in the greenhouse II>



안경하,
〈이야기가 되다 7-1(담고 흐르는)〉



김수진, 〈달지 못한 행동〉



이말용, 〈그 자리〉



홍지희, 〈재-설정〉



오혜린, 〈은성동 우물계〉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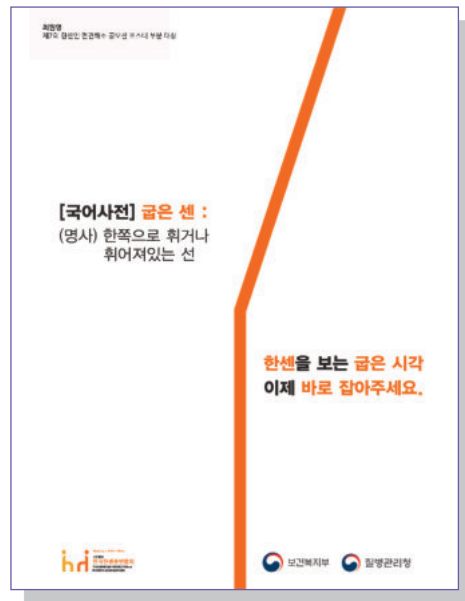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3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일석삼조’ 저탄소 식생활

김춘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안 도시들이 가라앉는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도 극한의 더위와 가뭄이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재해 수준의 비가 쏟아진다. 지구는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대재앙이 발생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2040년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측보다 10여년이나 앞당겨진 분석 결과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세기 중 반 2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미 올해 여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폭염과 산불, 대기 불안정에 따른 엄

청난 폭우에 시달렸다. 중동 지역의 체감 온도는 66도를 넘었으며, 미국도 일부 도시의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했다. 그리스는 폭염 속 산불로 인해 3만여 명이 대피했고, 최근 리비아에서는 대홍수로 4,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IPCC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기가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된 것이다.

□ ‘저탄소 식생활’글로벌 캠페인 추진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탄소 배출량’을 집계·관리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31%는 먹거리에서 배출된다. 식습관만 바뀌도 탄소 배출량을 최대 31%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

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0개국 5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은 어렵지 않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을 소비하고, 축산물을 먹을 경우 메탄가스 발생량이 많은 대동물보다 소동물을 소비하는 식이다. 소고기 단백질 1kg당 탄소 배출량은 돼지고기의 5.3배, 닭고기의 8.4배이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소고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두 배의 25배, 콩의 60배에 달한다. 수산물도 탄소 배출량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12%에 불과하다. 특히 맹그로브에 비해 탄소 흡수율이 50배나 높은 해조류와 어패류는 성장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훌륭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생산·유통 과정에서도 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탄소 식품을 적극 소비하는 것도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

법이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온라인 거래 및 전기차 등 저탄소 물류 운송을 통해 유통 과정의 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최소화하고 GAP 인증관리 등으로 생산 과정의 탄소도 감축할 수 있다.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남김없이 먹는 것도 중요하다. 전 세계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13t이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33억t에 달한다.

이러한 저탄소 식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과 제철 수산물은 영양이 풍부하며, 적정량을 조리해서 먹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과식할 우려도 사라진다. 저탄소 식생활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든 지구를 구할 수 있으며,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으로의 10년이 골든타임이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오늘부터 저탄소 식생활을 시작하자.

두통, 참지 말고 해결하기



윤성상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전문 진료분야

-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 운동성질환, 어지럼증

▣ 약력 및 학회 활동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로 대한신경과학회 협력이사,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홍보이사, 대한신경중환자학회 학술위원이자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두통학회, 유럽신경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호소하는 3대 증상(두통, 복통, 어지럼증) 중에서도 두통은 1위를 차지한다.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두통부터 평생을 짓누르는 만성 두통까지 두통의 세계는 넓고 개인마다 다르다. 최근 새롭고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V 두통의 위험 신호는 따로 있다

통상 심장이 박동하듯 육신육신 아픈 두통을 혈관성 두통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편두통과 군집성 두통이 여기에 속한다. 머리 주변을 둘러싼 근육이 위축되면서 마치 쪼이듯이 아픈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다. 심리적으로 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긴장한다는 의미다. 때로 특정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음식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을 때 머리가 아픈 이들도 있고, 운동을 할 때나 성관계 시 두통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근본적으로 두통의 진단은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두통과, 질환 등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두통을 겪는 환자를 만나면, 의료진은 일차성 두통인지 이차성 두통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CT나 MRI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아래와 같다.

- 전에는 두통이 없다가 갑자기 아플 때
- 감각 이상(시각)이나 마비가 동반될 때
- 발열이 있을 때
- 오래된 두통의 양상이 바뀌었을 때(육신육신 아프다가 콧콕 찌르듯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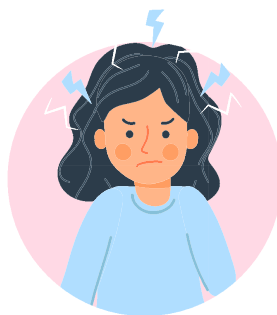
“

“주기적으로 두통을 겪는 이들일수록, 두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만 약을 먹어야 하는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험상 오래된 두통일수록 위험 신호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오랜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20~30% 정도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거나 두통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뇌막염이나 뇌종양, 뇌출혈 등이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V 두통 진단은 사건을 조사하듯 상세히 원인을 파악

일차성 두통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두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한 일차성 두통은 검사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뾰족한 진단법도 없기 때문에 의료진은 마치 사건을 조사하듯이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물어가며 확인하여야 한다. 두통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동반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특정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 두통이 발생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두통을 진단한다. 의료진의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치료는 현재의 두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일종의 진통제가 있고, 두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약제가 있다. 예방 약제를 처방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아프고, 아플 때마다 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두통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두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두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플 때만 약을 먹어야 하는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V 만성 두통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

10여 년 이상 오래된 편두통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통증을 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생물학제제의 개발로 만성 두통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최근에는 삼차신경 말단에 뇌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과다 생성되면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약제가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생물학제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섯 번 주사제 투여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방했던 환자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기분”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오래된 통증에서 빠르게 해방될 수 있다. 생물학제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편두통 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한다. 아직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단점이다.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관해 두통일지를 써야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생물학제제 말고도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두통을 애써 참을 필요가 없다고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래된 두통일수록 원인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해 보길 권한다. 현재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자료제공 : 경희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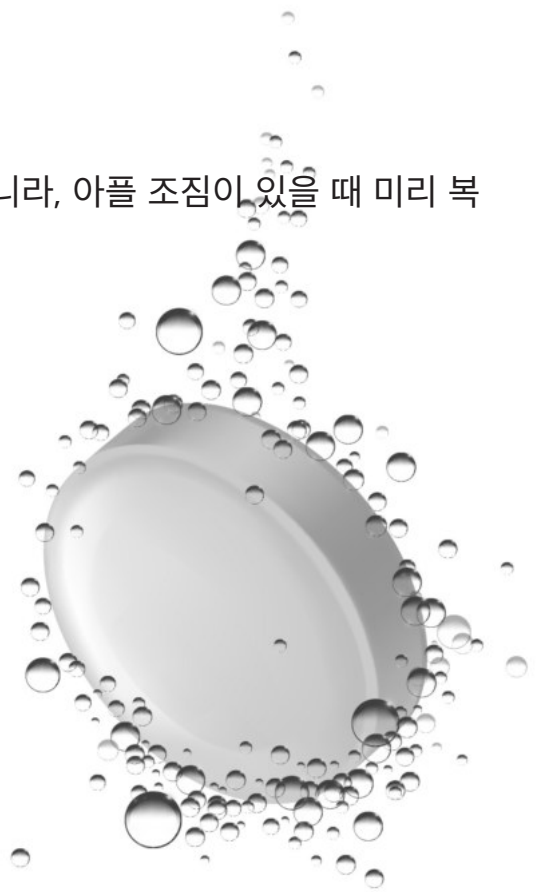
V TIP

Q. 진통제를 일주일에 이틀 이상 먹는다면?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아프게 되는 ‘약물 과용성 두통’을 겪는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진통제를 복용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다른 약제를 쓰는 것이 좋다.

Q. 진통제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

진통제는 통증을 참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아플 조짐이 있을 때 미리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다.



가을에 조심해야 할 질병 6가지

계절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더욱더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가을!
가을에 잘 걸리는 질병을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감기

가을에 가장 흔하게 걸리는 대표 질환 ‘감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가 겨울보다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인후통, 두통, 콧물, 코막힘, 오한, 식은땀, 기침, 피로감 증상
감기가 지속되면 폐렴을 의심해야 함

- 손과 발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기
- 외출 시 얇은 겉옷 챙기기
-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 키위, 레몬, 오렌지, 양배추, 브로콜린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



알레르기 비염

추운 날씨와 건조함으로 봄철보다 가을철에 많아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
특정물질에 노출됐을 때 과민반응을 보이는 만성질환 감기와 다른
점은 기온차가 급격하게 나는 아침, 저녁에만 증상이 심해짐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온몸 가려움증, 코 부위의 통증, 눈물 등
의 증상

- 개인위생은 물론 집 안 환기를 잘 시키기
-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은 외출 삼가
-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면역력 높이기



천식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가 어떤 특정 물질에 노출돼 염증을 일으켜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만성호흡기질환 기침, 호흡곤란, 가래, 쌉쌉거림, 가슴답답함 등의 증상 찬바람,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담배연기, 유전적요인 등에 의해 유발

- 실내 커튼, 침구류 등에 있는 집먼지진드기 퇴치
- 자주 집 안을 환기 해주고, 습도는 50~60% 정도로 유지
-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 채소도 많이 먹기
- 황사나 담배연기 등을 피하기
- 규칙적인 생활습관
- 충분한 휴식



렙토스피라증

소, 개, 쥐 등 야생동물의 소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전염되는 질병 약 7일~12일 정도 잠복기 후에 발열, 두통, 구토, 오한, 심한 근육통, 안결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남

추후에 황달, 발진, 피부나 점막의 출혈, 객혈 등을 유발

-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 들어가지 않기(수영하지 않기)
- 산이나 들, 숲으로 갈 때는 긴팔과 긴바지 입기
- 야외작업 시 보호복과 장화 신기
- 물에 노출됐다면 반드시 피부를 깨끗하게 씻기



노로바이러스

가을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감염병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부터 점차적으로 증식하기 시작 약 1~2일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어지럼증, 오한, 발열 등의 증세 동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끓인 물을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쭈쭈가무시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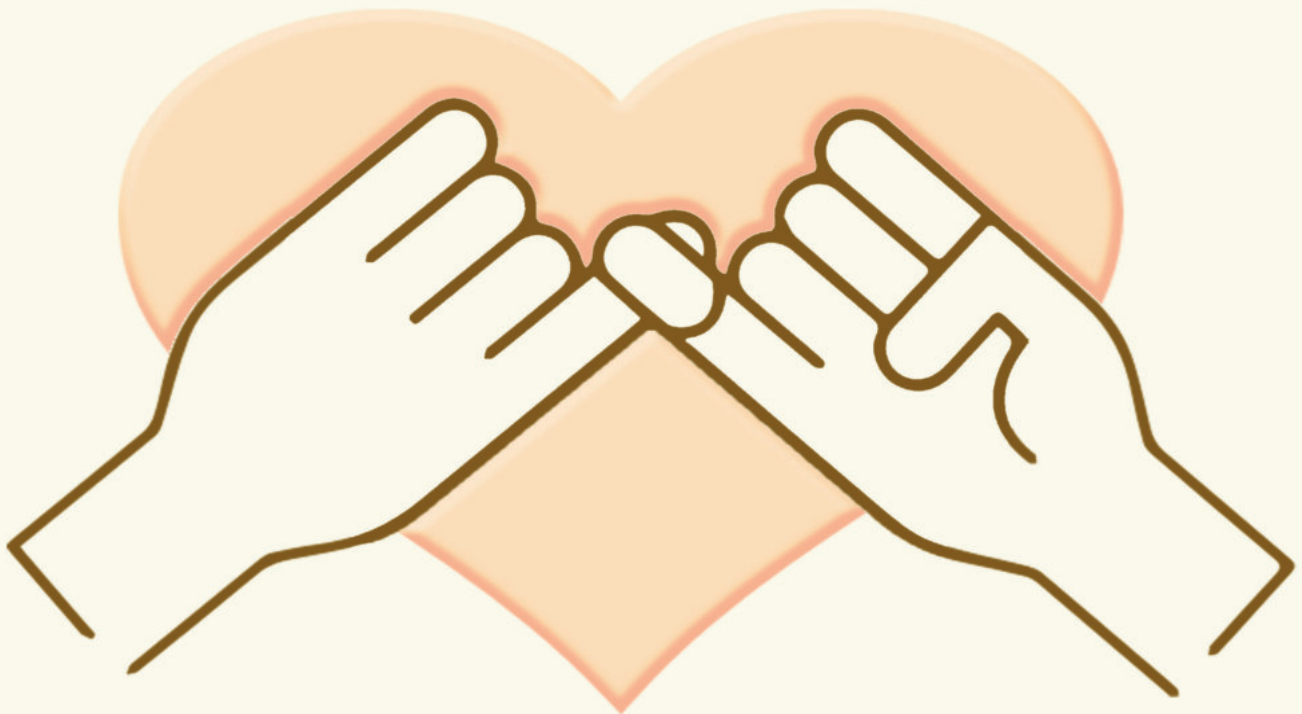
쭈쭈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 몸에 붙어 피를 빨아 먹는 것으로 감염성질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9월~11월 사이에 주로 발병 약 10일간의 잠복기를 가지며,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 두통, 오한, 복통,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을 보임

쭈쭈가무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치료받지 않으면 패혈성쇼크, 호흡부전, 뇌수막염, 난청, 이명 등 합병증이 올 수 있어서 위험함

-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긴팔, 긴바지 입기
- 기피제를 뿌리고 풀밭이나 잔디밭에는 돛자리 없이 앉거나 눕지 않기
- 외출 후 집에 와서는 샤워를 하고 야외활동 한 의복은 세탁하기

땡동 땡동 복용 시간입니다

개인별 약 복용법에 맞게
올바르고 꾸준한 약 복용,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요즘이책

자료제공 : 교보문고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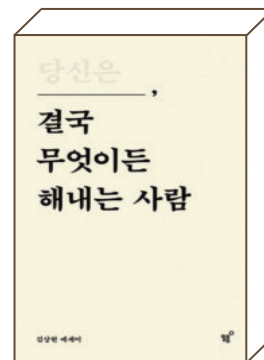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는 자기 확신 에세이

저자는 단순히 ‘잘될 거야’ 하며 막연한 말을 전하지 않는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진짜 ‘나’를 찾게 해 주고 지금 당장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 준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는 삶에서 매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준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뿌리 깊이 심어 주는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본래 활짝 피어날 운명이니,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서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이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를 통해 인간관계와 행복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문장을 전한 김상현 작가는 신작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통해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희망과 믿음의 문장들로 담아냈다.

삶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이 책이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줄 것이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①		②		
		③		④

지난호 정답

			① 구	월
② 우	리	나	라	
주			봉	
③ 인	식	조	사	
			회	

가로세로 낱말 퀴즈

가로문제

- 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함께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재활시설로 김성수 정책자문위원이 계신 곳 (P14 참조)
- ③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세로문제

- ② 여수에 위치한 도성마을에 ‘썸글라스’를 주제로 설치미술 축제를 개최한 설치 그룹 이름(P34 참조)
- ④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참여방법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문의전화 : 02)1566-2339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청천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 402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세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세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9·10 월호